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7. 13.(수)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	책임자	과 장 이수영 (02-2100-2650)
		담당자	사무관 장원석 (02-2100-2654)

##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 해명자료 배포를 지시하거나 압박한 바 없습니다.

- 국민일보 7월 13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 -

### 1. 기사내용

- 국민일보는 7.13일 「금융위의 황당관치... “T+1 도입 검토 없다 하라” 압박」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
  - “거래소의 입장이 이틀 새 극적으로 뒤바뀐 배경에는 금융위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”, “금융위가 공공기관도 아닌 독립기관인 거래소에 거짓 해명자료 배포를 지시하는 방식도 새 정부가 내건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### 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-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 해명자료 배포를 지시하거나 압박한 바 없습니다.
  -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